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10월 개최

코로나 백신 상황 등 고려 결정
총감독에 장진만 교수 위촉
면밀한 준비 안전·안심 축제로

“드디어 일상으로.”
형형색색 국화꽃에서부터 대형 국화 조형물까지, 한 자리에서 국화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0월 함평군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21일 정부의 3분기 백신접종 계획과 현재 함평군민 백신접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준 함평지역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은 전체 주민 대비 50.2%를 넘어섰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멈췄던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면밀히 준비해 안전·안심 축제로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아울러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총감독으로 장진만 오산대 공연축제론텐츠학과 겸임교수를 위촉했다. 장 감독은 축제 전반을 연출하고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 엑스포공원 전경. <함평군 제공>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이와 함께 실무부서 회의와 공모를 통해 다음달까지 정확한 축제 일정과 주제를 선정하고, 축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

터 올 상반기까지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일찍이 가을 축제 개최를 결정한 만큼 심신이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면서도 안전·안심 축제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강진군 제1금고 농협 2금고 광주은행 결정 60년만에 복수금고 체제로

강진군 금고가 60년만에 농협은행 독주 시대를 마감하고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한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광주은행을 결정했다.

1금고인 농협은행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6개, 기금 10개를 관리·운영(2020년 결산 기준 총 1350억원)하고, 2금고인 광주은행은 재정안정화기금(170억원)을 관리하게 된다. 강진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군의 현금, 유가증권,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을 취급하게 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7일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위원을 2~3배수로 추천받아 결정했으며,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어 오던 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선정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상심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부군수)은 “이번에 결정된 각 금융기관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함평생태공원 흐드러진 수국 함평자연생태공원에 활짝 핀 형형색색 수국(水菊)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夏至)인 21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흐드러진 수국을 보면서 더위를 식혔다. <함평군 제공>

나주시 ‘과수화상병’ 예방·차단 총력전

국내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과수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火傷病 Fire blight)’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 1100여곳을 대상으로 정기예찰·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병해충에 의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과 줄기, 열매가 까맣게 고사하는 병이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강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는 뿌리 채 뽑아서 태워 물어야 해 사실상 과수농가에겐 폐농 선고나 다름없다.
지난해 전국 15개 시·군 744농가에서 발병해 과원 ‘394ha’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안동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병해 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예찰·발생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각 읍·면·동 별로 대대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1차 정기예찰을 시작한 가운데 1114농가(980ha)에 대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집중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과원을 출입하는 농작업자와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외부인의 과원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화상병 초기 발병 징후 발견을 위해 주 1회 이상 자가 예찰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배 재배농가를 상대로 과수화상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성군 265억원 투입 마을 하수도 대대적 정비

장성군이 총 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해 마을 하수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장성군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낡은 하수관을 정비하고 하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을 원산·구산동 일대의 오래된 하수관을 전면 교체·보수한다. 이 지역은 20여년 전에 설치된 하수관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했다. 사업 규모는 27.6km로, 144억원의 국비보조 사업비가 책정됐다. 오는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면 단위의 하수관 정비는 옥전지구(삼계면 수옥리)와 홍정지구(삼서면 홍정·두월리)에서 펼쳐진다. 총 121억원(국비 75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들

여 하수관로 14.3km를 매설한다.
또 하수처리장을 신설해 하수 처리량을 150t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농촌 가옥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악취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분뇨수거비도 절약할 수 있다. 오는 2023년 정비 완료로 목표로 이달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옐로우시티(Yellow city) 장성이 추구하는 최우선 군정 목표”라면서 “앞으로도 생활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기간 9월까지 연장

화순군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력을 위해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화순군은 당초 이달까지 10%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등 26개 업무대행

금융기관에서 구매 또는 전환할 수 있다.
농·축협이나 우체국,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카드 발급과 상품권 충전이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기간을 연장했다”며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화순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소버니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